

하반기 닭고기 수급 전망 - 북 경기를 중심으로



이 형 우 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축산관측팀

1. 동향

2006년 11월 25일 전북 지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재발해 닭고기 소비가 침체되면서 사육농가와 계열업체의 피해가 매우 컸다. 국내산 닭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소비가 완전히 예년수준으로 회복되기에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007년 들어서는 닭고기 소비 침체가 지속되고 공급이 과잉되는 현상이 지속돼 육계 가격이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초·중복이 있는 7월 육계 가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3년의 경우 H사 화재로 인한 시장의 불안정으로 육계 농가는 최근 10년간 7월

육계 가격 중 최악의 상황을 경험했다. 2004년과 2005년에는 중계 도태로 인한 공급감소 그리고 수입량이 크게 감소하면서 2000년(1,732원) 이후 가장 높은 가격대(1,500~1,600원)를 나타냈다. 2006년의 경우 북 경기에도 육계 가격 약세가 예상됐으나 계열업체의 대형 유통업체 할인행사로 북 물량이 다소 소진되면서 무더위와 함께 생산성 저하로 8월에는 강세를 보였다.

도계수수가 모두 소비된다는 가정 하에 월별 도계(소비)지수를 살펴보면, 7월은 닭고기 소비가 크게 증가하는 초복과 중복이 있어 연중 소비가 가장 많은 달이다. 시장에 외부 충격이 없는 한 육계 가격이 강세를 보이는 달이기도 하다. 7월을 정점으로 하반기 도계수수는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 경기에 앞서 매년 5, 6월은 닭고기 생산량이 급격히 늘어나는 시기인 반면 소비는 이에

〈표 1〉 월별 도계(소비)지수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도계 지수	100.0	88.6	98.3	106.8	128.8	143.5	172.7	139.8	115.5	110.2	110.1	116.6
비고		질병·황사 발생					초·중복	말복				

* 주 : 도계지수는 1996~2006년까지 해당월의 평균 도계수수를 구하고 1월을 100으로 함.

미치지 못해 육계 가격이 약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올해 5월 육계 가격은 일부지역에서의 질병 발생으로 생산성이 크게 저하되면서 대형 계열사의 외부구매로 지난해보다 상승했으나, 5월 중순이후 하락세로 전환돼 6월까지 약세가 예상된다.

2. 닭고기 공급

계열업체의 시장 지배력 강화로 원종계 수입 자육 쿼터제(9만수)가 유명무실해지면서 2006년 육용 원종계 병아리 입식수수가 2005년보다 크게(28.9%) 증가한 14만1천수였다. 2006년 육용 종계 병아리 입식수수 또한 2005년보다 5.4% 증가한 533만수였다. 원종계 입식의 증가로 2007년 1~4월에 입식된 육용 종계수수는 209만수로 지난해 동기기간보다 17.4%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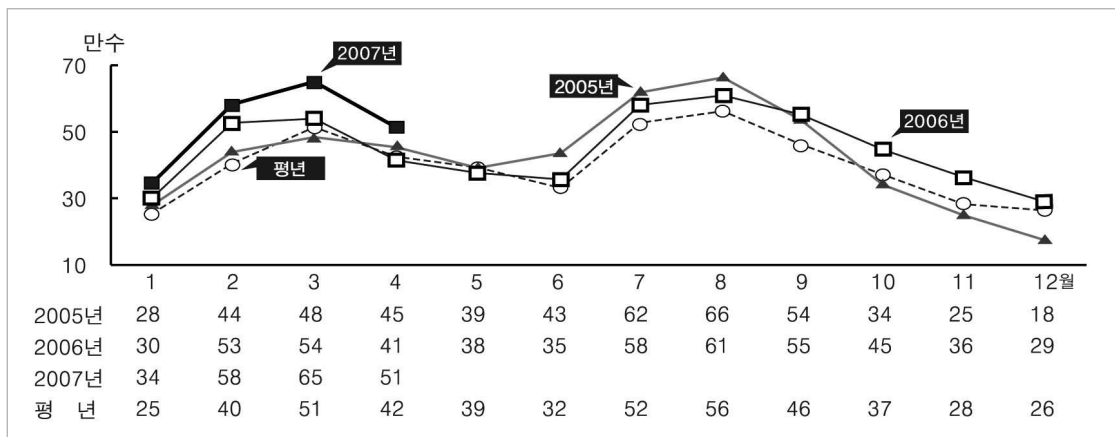
육용 종계 병아리 입식수수를 이용한 6월과 7월의 병아리 생산 잠재력은 높아질 전망이다.

7월 초·중복(7월 15일, 25일)에 영향을 미치는 6월 병아리 생산 잠재력은 전년 동기대비 3.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06년 2~11월 종계 입식수수가 475만수로 2005년 동기기간보다 증가했기 때문이다. 말복(8월 14일)에 영향을 미치는 7월 육용 실용계 병아리 생산 잠재력 또한 전년 동기대비 3.8%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북 경기 병아리 생산 잠재력이 높아 사육수수가 많을 것으로 보이며, 도계수수 또한 지난해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북 이후 연말로 갈수록 육용 실용계 병아리 생산 잠재력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2007년에 입식된 종계 입식수수가 전년보다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2007년(1~4월) 육용종계 배합사료 생산량은 전년 동기기간보다 8.7% 증가한 90,347톤이었다. 이러한 원인은 육용종계 입식이 크게 증가했으며 종계 환우계군이 상당수 생산에 가담하

<그림 1> 육용 종계 입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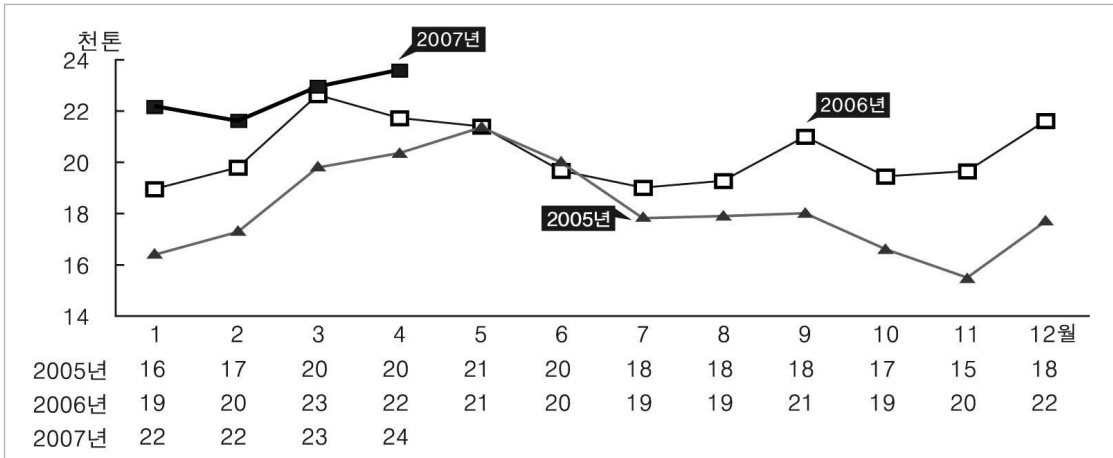
* 자료 : 대한양계협회

〈표 2〉 병아리 생산 잠재력 추이(6~11월)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2007년(A)	103.1	97.9	93.7	97.3	103.2	106.7
2006년(B)	100.0	94.3	90.2	91.8	95.0	94.7
증감률(A/B, %)	3.1	3.8	3.8	5.9	8.6	12.7

* 주 : 잠재력 지수는 인식된 육용 종계의 생산성이 일정하다는 가정 하에 7개월전 10개월 누적치를 이용해 계산했으며 2006년 6월 병아리 생산 잠재력을 100으로 함.
* 자료 : 농업관측정보센터 추정치

〈그림 2〉 육용 종계 배합사료 생산동향



* 자료 : 농림부

고 있기 때문이다.

닭고기 수입량을 살펴보면, 육계 산지가격이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이면서 국내가격이 국제가격보다 낮아지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2007년 1~4월 평균 닭고기 수입량은 20,154톤으로 2006년 동기간(23,377톤)보다 13.8% 감소했다.

5월 13일 기준으로 한국계육협회 회원사 닭고기 냉동 비축량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이후 닭고기 소비 감소로 전년 동기보다 2배 이상 증가한 973만수(삼계포함)였다(한국계육협회). 이러한 닭고기 냉동 비축량은 육계 산지가격이 향후 회복하는데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표 3〉 냉동 닭고기 비축현황(5월 13일자 기준)

(단위 : 천수)

구분	미절단	절단	부분육	삼계	계
2007년(A)	4,063	510	3,647	1,497	9,717
2006년(B)	1,561	319	637	1,483	4,000
증감률(A/B, %)	160.3	59.9	472.4	0.9	142.9

* 자료 : 한국계육협회(회원사)

3. 가격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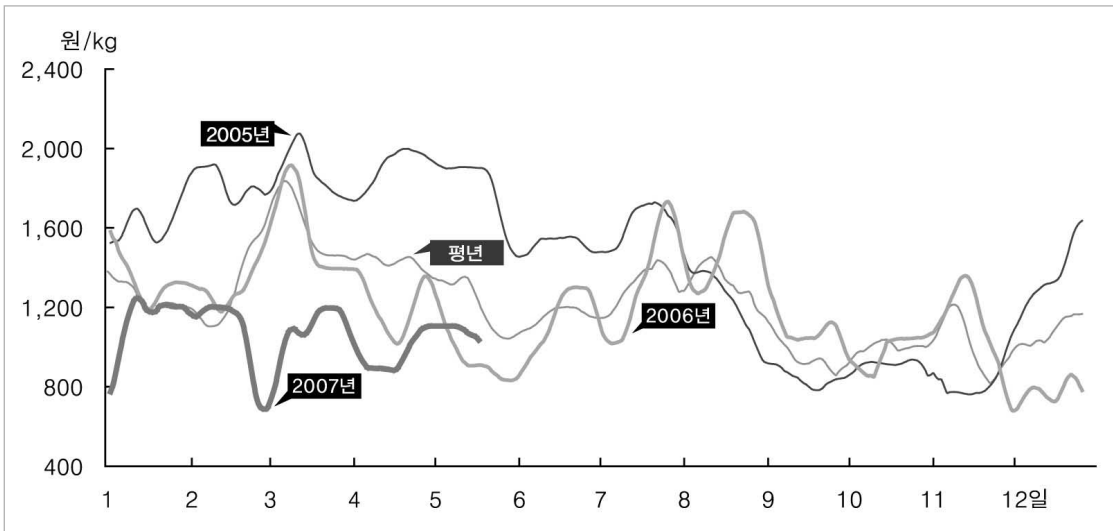
위에서 살펴본 자료에 의하면 북 경기의 닭고기 공급은 과잉될 것으로 전망된다. 닭고기 소비가 예년의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하고 공급 측면을 놓고 보면 도계수수 증가, 냉동 비축 증가 등이 악재로 작용해 북경기의 육계 평균가격은 평년수준(1,200~1,400원)의 최저점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7월과 8월은 닭고기 소비가 증가하는 시기이며 북 경기 육계 가격은 날씨의 영향을 크

게 받는다. 올 여름 폭염이 기승을 부릴 경우 생산성 저하로 인해 일시적으로 육계 산지가격은 높게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

최근 육계 가격을 살펴보면, 오히려 8월(말북) 가격이 더 높게 형성되었던 점을 감안할 때 장마 이후 8월 무더위가 지속될 경우 육계 생산성 저하 및 닭고기 수요 증가요인으로 작용해 8월 육계 가격이 7월보다 높게 형성될 수 있다. 하반기의 병아리 생산 잠재력 또한 여전히 높아 공급과잉으로 북 이후의 육계 가격이 약세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그림 3〉 육계 산지가격(농협발표가격)



* 주 : 평년은 2002~2006년의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
* 자료 : 농협, 축산물 가격정보(5일 이동평균가격)

초복(7월 15일) · 중복(7월 25일) · 말복(8월 14일)에는

삼계탕으로 더위를 이기세요!

